

공통의 비전을 추구하고, 평화와 번영에 직결된 기후문제 해결을 포함한 우리 시대 최대의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을 모두 발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훌륭한 행사를 멋지게 개최해 왔을 뿐 아니라 2030년까지 카본프리 아일랜드로 변모하겠다는 약속으로 기후위기 해결에 헌신해 온 제주도에 특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추진해 온 스마트그리드 사업과 2011년 전기차 선도도시로 선정된 것에 대해 제주도를 높이 사고 싶습니다. 원 지사께서도 전기차를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전기차를 운전합니다. 제주도는 현재 등록된 37만 대 차량을 모두 전기차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축사를 마치며, 유명한 경제학자 루디 돈부시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모든 일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만, 그것이 벌어지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빨리 벌어진다.' 우리는 다양한 기술혁명에서 이러한 일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회적, 정치적 혁명에서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구 기후를 보전하기 위한 환경운동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후손에게 도덕적, 윤리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할 것이고, 성공했을 때 감사의 대상은 제주도가 될 것입니다.

[세계지도자세션 모두연설]

한승주 전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투키디데스 함정'을 피하려면

'아시아의 미래 비전 공유'를 주제로 한 세계지도자세션 좌장을 맡게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시아가 불안정과 안정적인 발전이라는 상반된 두 측면을 함께 보여 주는 상황에서 오늘 이 세션이 열리게 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분열됨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은 글로벌화라는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유무역, 첨단기술, 즉각적인 디지털 소통수단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이 같은 발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국제질서 때문에 실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 가결, 이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전 세계적 민족주의 경향의 확산 현상을 보면 글로벌화, 진보주의적 질서, 다자주의로 인해 나타난 변화들 때문에 세계적으로 많은 계층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시아의 미래 비전 공유'와 관련해 비관론과 낙관론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수정주의적 신흥국과 기성 강대국 간 갈등의 배경을 설명해 주는 '투키디데스 함정'을 거론합니다. 다른 이는 신흥강국이 자신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하지 않아 위기를 초래하는 '킨들버거 함정'에 대해 말합니다. 여기에다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위협 문제도 있습니다. 민족주의 발호, 무기경쟁, 지역분쟁으로 인한 문제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밝은 미래를 전망할 만한 여지도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발전 속도가 빠르고 지역 간 협력체제가 충분하진 않아도 서서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역내 국가 간 상호의존도, 인적 교류, 문화협력 역시 하루가 다르게 커지거나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미래에 가로놓인 문제와 장애물이 눈앞에 보일지라도 우리는 마음속에 아시아의 미래를 향한 밝고 긍정적인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계지도자세션 기조연설 I]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제5대 인도네시아 대통령



평화·다양성 실현의 디딤돌 '판차실라'

저는 이번 제주포럼에 슬픈 심정으로 참석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자살폭탄 테러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종교적 아집에서 비롯된 이러한 사건은 인도네시아에서 처음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비슷한 사건이 태국 방콕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오늘까지도 필리핀 말라위시가 IS와 연계된 단체의 공격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것은 슬픈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테러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영국 맨체스터 폭탄 테러를 포함해 전 세계 다른 지역으로도 퍼져 갔습니다.

이러한 사회를 현대 문명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아시아-아프리카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 지도자들은 제한된 여건 속에서 인도네시아 반둥에 모여 1955년에 회의를 했습니다. 이날 다양한 인종, 민족집단, 종교, 신앙의 장벽을 제거했습니다. 이 회담은 또한 모든 차이를 그들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흐름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것은 이들 국가에 혜택을 주었을 뿐 아니라 아프리카, 아시아, 심지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는 별개로 새로운 문명을 건설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회담과 늘 함께 해왔으며 이 회담을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이 사건을 오늘날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과 비교해 봅시다. 종교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의 결과로 인해 유혈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보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1955년 4월 18일 아시아, 아프리카 회담의 개막식에서 수카르노 대통령이 한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는 다른 어느 대륙보다 다양한 종교와 신앙이 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전 세계로 퍼진 신앙과 사상의 탄생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교의 다양한 형식 때문에 갈라져야 하는 걸까요? 모든 종교가 전파하고자 하는 역사와 개성, 존재 근거, 긍지, 목적, 진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위대한 종교는 관용을 설파하고 상생의 원칙을 따를 것을 요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각 종교의 신도들이 다른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의무로 모든 각각의 신도들에게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종교는 타락하고 종교의 진정한 목적은 왜곡됩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깨닫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민족적 단결의 원천이자 외국의 간섭을 가로막는 종교적 믿음의 힘은 분열을 촉발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공동의 노력으로 힘들게 성취한 자유를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시아 국가의 창립자들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회담 회원국들의 원칙과 이상이 아시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운동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일어나는 극단적 운동에 대한 대응도 포함됩니다. 지금은 우리의 국가 설립자들로부터 그리고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의 역사로부터 모든 생명체가 지니는 고유한 다양성조차도 공동의 노력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고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양성은 협력을 통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화는 겉으로 보기에 분리되지 않은 국경 없는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양한 문제가 출현하고 있고 국가단위를 넘어 서로 연결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 마약거래, 금융범죄부터 테러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이 중 독립적으로 각국의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문제가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가 제3세계 국가들에게만 영향을 준다고 생각치 않길 바랍니다. 선진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다면적 차원의 위기를 잘 관찰해 보십시오.

이 자리를 빌려 기후변화와 그것이 지구와 인류 문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끊임없이 의견을 표명해 오



신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께 경의와 함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칸 영화제에서 고어 전 부통령께서 밝힌 입장에 동의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기후변화의 움직임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권력이 기후변화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그저 가만히 있거나 탄소거래를 통해 기후변화를 상업화하는 틀에 갇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기후변화에 관련된 국제협약 중 하나인 2015년 기후협정은 논의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과거 교토의정서가 규율해 온 탄소배출 감소를 지지합니다. 이제는 파리협약에서 정해진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기후정의 운동에 참여할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된 온실가스 배출로 대기권을 파괴해 온 선진국들도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지금은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그들의 부채를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요 원칙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을 고려하고, 개인당 배출 속도를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국제적 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지구상의 개인들은 누구나 동일하게 대기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로부터 72년 전인 1945년 6월 1일은 수카르노 대통령이 역사적인 연설을 한 날입니다. 이 연설에서 그는 '판차실라'를 제시했습니다. 판차실라는 나중에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근본 원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판차실라는 다섯 가지 원칙을 의미합니다.

첫째, 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모든 이들은 어떤 종교적 이기주의 없이 문화적으로 신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신에 대한 믿음, 고귀한 인격, 서로에 대한 존중을 의미합니다. 둘째, 공정하고 문명화된 인류애입니다. 이 원칙은 민족주의를 발휘합니다. 민족주의는 자유운동이고 억압에 대한 해법이며 자유에서 비롯된 위대한 영감입니다. 이 원칙을 통해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을 위한 정의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주의자들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함께 사랑합니다. 셋째, 인도네시아의 단결입니다. 이 원칙은 서로를 굳건히 끌어안아야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민족주의가 국제주의로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민족주의와 국제주의 간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국제주의의 원칙을 통해 모든 국가는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다른 모든 국가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켜줍니다. 국제주의를 통해 국가는 인종 우월주의, 국수주의, 세계시민주의를 벗어나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넷째, 협의와 의견 일치입니다. 즉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서구가 독점하거나 서구가 만들어낸 사회적 원칙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특정한 사회적 조건에 따라 시행 과정에서 변화를 겪기도 했지만, 인간 본래의 조건입니다. 다섯째, 사회정의는 사회복지와 연결되어 있고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판차실라입니다. 신에 대한 믿음, 민족주의, 국제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정의. 이것이 인도네시아 민족의 삶의 방식입니다.

판차실라는 삶의 중추적 지도원칙이자, 정신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우리가 쟁취해야 할 원칙입니다. 판차실라가 보편적 의미를 지니고 있고 국제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1세기를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해법에 이르는 정신이자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도 증오와 갈등을 젊은 세대로 이전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믿기에 갈등과 분규에 대해서는 평화의 길을 택하는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수단으로서, 빈곤과 억압을 종식시키는 진지한 노력의 하나로, 여러분에게 판차실라 원칙을 아시아 국가의 삶의 방식으로 제안합니다. 지금 그리고 다가올 시대에 아시아가 판차실라 정신으로 세계의 정의와 사회복지를 이루기 위해 싸워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세계지도자세션 기조연설Ⅱ]

아니발 카바코 실바 전 포르투갈 대통령



동아시아 안보·번영의 돌파구, 유럽과의 협력에 있다

우리는 국제정치 및 경제질서의 측면에서 엄청난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의 징후가 나타났고 세계화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정학적 환경의 악화도 느껴집니다. 일부 국가들은 군사비 지출의 증대를 준비 중입니다. 사이버 위협도 증가했습니다. 대중 영합적 정치는 세계 여러 곳에서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환경 속에서 아시아의 평화, 안보, 번영은 시의적절한 주제입니다.

유럽연합과 동아시아의 관계 강화가 이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연합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구역으로 미국보다도 넓고, 수출입 규모로 봐도 세계 최대의 무역 강대국입니다. 전 세계 100여 개 이상의 국가들에게 유럽연합은 최대의 수출시장입니다. 유럽연합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평가되어야 하는 것은 유럽의 핵심인 유로 존입니다. 하나의 중앙은행, 단일 화폐인 유로, 단일한 금융정책을 19개국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로 존이 붕괴하리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한 국가가 유로 존을 탈퇴하면 그 부정적 여파가 너무 커서 어느 정부도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영국은 유럽연합에 속하지만 유로 존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브렉시트 협상은 매우 힘들 것이며 영국은 다른 27개 회원국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장래에 더 많은 국가들이 유로 존에 가입하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포르투갈이 유럽연합에 가입한 이후 10년간 포르투갈 총리직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단일경제, 통화조약 협상의 핵심적 부분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위대한 성취가 국제 금융체제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로는 달러와 함께 이미 국제결제통화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럽연합이 강해지고 유로화가 국제통화가 되기를 바라고 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유럽연합이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대국이



되는 것이 중국의 이해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제문제에서 미국이 행사하고 있는 영향력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유럽에서는 일관된 공통의 이해와 가치에 근거하여 역내 질서를 창출해 냈습니다. 아시아에는 여러 국가들을 묶을 수 있는 일관된 역내 질서가 없습니다. 양자관계가 지배적입니다. 동아시아 국가 간 정치적 대화와 협력의 범위는 매우 제한되어 있고 오해와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조정 없이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양국 모두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양국은 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전략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북한 체제의 도발적 행동을 묵과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도발에 관한 한 중국은 허용할 수 없는 최저선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중국은 핵 개발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는 이웃 국가 때문에 자국의 경제, 사회적 발전과 국제사회에서의 지도력이 위협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동아시아 국가들과 유럽연합의 협력 증진이 이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미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힘의 균형 구도에 유럽연합이 참여하는 것은 이 지역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럽연합 자체가 이 지역에는 가치 있는 자산이라고 확신합니다. 유럽연합은 평화, 자유, 민주주의를 강하게 옹호합니다. 세계의 주요 상품과 서비스 제공 지역으로서 유럽연합은 국제정치 현안에 대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란과 핵 문제 타결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다자 간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세계무역기구의 질서를 존중합니다. 유럽연합은 파리기후협정 실행을 앞장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입니다. 유럽과 동아시아의 경제적, 정치적 관계는 이미 굳건합니다. 유럽연합과 중국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었고, 유럽연합은 중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입니다. 유럽연합과 중국의 포괄적 투자협정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유럽연합은 한국과도 전략적 동반자관계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한국의 세 번째 수출시장입니다.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서 미국과 별개로 동아시아에서 유럽연합이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한다면 한국이 이 지역 안보문제에 관하여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은 자유무역 및 전략적 동반자 협정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주요 정치적 이슈, 국제 문제에 대한 중국, 한국, 일본과의 동반자관계를 강화한다면 더 긴밀한 협력이 가능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동아시아가 보다 협력적인 체제로 변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세계지도자세션 기조연설Ⅲ]

푼살마 오치르바트 전 몽골 대통령



부산-몽골-유럽 잇는 번영의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제주포럼에서 세계 리더들이 '아시아의 미래 비전 공유'라는 주제로 우리가 처해 있는 과제와 공통 목표에 대한 전망을 구체화하여,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발전에서 아시아의 위상과 역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면적이 세계 대륙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 인구의 60%는 아시아 48개 국가에서 거주하며, 아시아 국가들의 세계 GDP 비중도 5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급증했습니다. 세계에서 이 모든 것을 '아시아의 기적'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반복하지 않고, 그간의 성과와 현재 도달한 수준을 자랑스럽게 여겨 우리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이용해 번영 비전을 구상하고, 실행 방안과 메커니즘을 모색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평화를 지키고, 안정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데 공동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평화 없이 안정적인 번영이 없고, 번영 없이 평화를 강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주포럼의 의제인 아시아의 미래를 평화와 번영과 연결시킨 것을 지지하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15년에 체결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2030 지속가능 발전의제는 세계 미래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는 중대한 협정입니다. 이 기회를 빌려, 몽골 국회에서 파리기후협정을 비준하고 2030년까지 몽골의 지속가능 발전 활동 계획을 수립한 것을 알려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경제 안정화를 통해 안정적인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광범위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지식으로 공유하여 보급하고, 기술과 재정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

여 아시아 국가들과 다방면으로 협력을 강화시킨다면 아시아 발전의 기반도 더욱 강화될 것 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전 세계적으로 평화와 번영을 다질 것이며, 이것이 아시아 미래의 공통적인 비전이자 그 핵심이라고 봅니다.

몽골의 다자 및 양자 협력을 아시아 미래와 연관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북아는 몽골에 있어 향후 자국 발전을 보장하는 큰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몽골 외국인 투자의 약 40%, 무역의 약 70%, 수출의 약 80% 가량이 동북아 국가와 이뤄지고 있으며 정치 분야 교류도 활발합니다. 수천 명의 몽골국민들이 동북아에 장기간 혹은 단기간 방문하고 있으며, 역내에는 역사와 문화가 유사한 국가들이 공존합니다. 몽골 대외정책 지침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과 양자 우호 친선 교류 관계를 발전시키고, 아태지역 다자 협력에 참여하며, 동아시아와 동북아, 중앙아시아에서는 전략적 안정 강화, 안보 협력을 확장하기 위한 정책과 활동을 지원하여 참여한다."

따라서 몽골은 동북아 미래 발전 모형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다. 현재 동북아 미래 발전 구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치·안보적 측면이며, 다른



하나는 경제 통합의 참여도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자면, 경제 통합을 우선시하는 일은 정치와 안보 문제를 저절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시아 미래를 확정하는 데 동북아시아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시아 각 국가는 자국의 과제가 있고, 고유의 전통과 풍습, 가치관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와 공동체지역의 공통 권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공통의 권익을 함께 제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곳 제주에서 모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제주포럼은 오늘날 아시아 지역 평화와 번영을 논하는 책임있는 무대일 뿐만 아니라 협력을 위한 아시아 공동사업 시행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세계 평화와 번영에서 아시아의 기여도, 위상과 역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지역 내 신뢰와 평화로운 공존 조건을 공동의 노력으로 구축해 지속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21세기 글로벌 문제 중 하나는 인류 안전 문제입니다. 안전을 무력으로 보장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고 경제 성장으로 보장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따라서 동북아를 포함한 아시아 전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방안은 경제 발전을 위한 협력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일대일로 정상회의'에서의 합의 내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인류 안전 보장은 아시아 미래를 위한 비전 중 핵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식품안전, 물 부족, 자연파괴와 전력소비의 증대 등 중요한 글로벌 문제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인류 안전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의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의 미래는 다각적인 협력에 의해 발전하는 것입니다. 제주포럼도 이러한 방면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동북아 번영을 위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 동북아는 3개 주요 경로의 교차 지점입니다. 동북아 지역에 한반도가 포함되며 한반도는 유라시아의 가장 동쪽 지점으로 실크로드 동부 지역의 출발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위치와 경제 성장, 미래 잠재력으로 보아 한반도는 동북아 지역에서 협력을 위한 중요한 지역이며 물류, 승객 운송의 교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남북의 철도노선을 회복시킬 수 있다면 지역 내 운송 네트워크가 실크로드와 연결되어 부산에서 유럽까지 중국 동부 3개 성, 러시아 극동 지역, 몽골, 일본 수출입의 일부가 한국 철도를 통해 이용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상이 가능합니다. 몽골과 북한 등 동북아 여러 국가는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면 경제 발전 범위가 지역을 넘어 상호 유익한 교류협력을 이루고 아시아 미래를 위한 공동 노력을 통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지도자세션 기조연설Ⅳ]

이홍구 전 대한민국 국무총리



평화체제 구축 방향, 역사의 교훈에서 찾는다

미래 비전의 공유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난 100년간의 과거에 대해 공감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20세기 전반기에는 제국주의가 몰락하는 대신 전체주의와 군국주의가 발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배(1910~1945년)를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연합국의 결정에 따라 남북 분단(1945년~현재)과 한국전쟁(1950~1953년) 그리고 냉전을 겪었습니다.

독립운동 초기부터 한국인들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독립 국가를 추구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지향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러한 접근방식을 취한 데에는 한반도 고유의 지정학적 환경에 근거해 한국인들이 직관적으로 형성한 관점도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시 한반도 주변국이었던 중국, 러시아, 일본은 오늘날에도 강대국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우방국인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히 확대됐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위상은 이들 4대 열강에 둘러싸인 중소국가 정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있는 한반도와 관련해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 대해 전망하려면 다음 세 가지 측면이 갖는 관계를 먼저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측면은 남북한 국내정치의 역학입니다. 두 번째 측면은 남북관계와 남북한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관계입니다. 세 번째 측면은 한반도 주변 4대 열강들 사이의 권력관계와 그것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 작용하고 있는 역학에 대해 잠시 살펴볼까 합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유엔의 감독 하에 총선거를 실시하고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규범과 주요한 추세에 걸맞은 국가 발전을 모색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룬 군사독재 시대를 경험하는 등 부침을 거듭해야만 했습니다.

한국의 권위주의 체제는 1987년 앞서 남유럽(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에서 일어난 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평화적으로 민주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선출된 한국의 대통령과 국회는 1988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남북한의 공존을 인정하는 내용의 새로운 통일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 합의에 따라 남한과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통일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냉전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독일이 1990년 통일되면서 한반도에도 화해 분위기가 확산되어 남북이 잇따라 고위급 회담을 개최한 결과 1991년에는 세 가지 중요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첫째, 남북한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체결, 둘째,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실현, 셋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한 일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한국은 1990년부터 1992년까지 러시아, 헝가리, 몽골, 중국과 국교를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도취할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1993년부터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재가동했고, 그 이후 북핵 문제는 언론을 비롯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됐습니다. 사실 북핵 문제는 올해 행사를 포함해 제주포럼에서 항상 다루는 토론 주제가 됐습니다. 건설적인 토론을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하려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에 군사적으로 대응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이 어떤 형식으로든 금명간에 북한과 대화에 나설 조짐이 있다는 관측도 미국과 중국의 경로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이 협상테이블로 올라갈 수만 있다면 남북의 1991년 합의서는 향후에 합의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가장 적절한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남북 간 양자합의라는 수준을 뛰어넘어 남북 합의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합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합의를 모색하는 과정은 주요 강대국들과 한반도 주변국들 모두가 현재의 갈등을 극복하고 아시아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 보유 문제와 관련된 모든 당사국들, 특히 주요국들은 중국을 동아시아 지역의 유일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도 핵보유국으로 용인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약 반세기 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위기를 넘긴 바 있습니다. 오늘날 북한발 위기는 쿠바 위기와 성격이 크게 다릅니다만 이 사례는 강대국의 역할과 영향력이 지역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전략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과거의 사례에서 배울 교훈이 있는지 살펴볼 적절한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